

간호학회들 “간호법, 90여개국에 존재…조속히 공포해야”

한국간호과학회·11개 간호학회 참여 지난 8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열어

대통령의 간호법 제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4100여 명의 간호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한국간호행정학회·한국기본간호학회·한국초간호학회·한국성인간호학회·한국아동간호학회·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한국정신간호학회·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대한중양간호학회·한국간호교육학회·한국노인간호학회) 회장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이며 국민적 공

감대가 높은 법안”이라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학교, 유치원, 보건소, 산업장,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도 7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근거는 간호사 배치 의무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면서 “더욱이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도 90여 개의 법령에 흩어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가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적정 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간호법 발의 당시에도 국민의힘 46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보건 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12만 간호대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간호과학회 및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초간호학회 등 11개 전공 간호학회 대표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이슬 기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스님 오체투지 행진 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8일 서울 조계사에서 일본대사관 앞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일본 정부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약속을 촉구하며 오

경찰,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신대방팸’ 압수수색

‘SNS 생중계 극단선택’ 이후 신고 30% ↑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둘러싸고 제기된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른바 ‘신대방팸’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신대방팸 중) 입건한 피의자 4명과 관련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다”며 “관련 자료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에서 미성년자 등 정신적으로 취약한 여성 등을 상대로 성범죄나 극단선택 조장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신대방팸 남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고층 건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중계를 하며 극단선택한 10대 중학생 A양도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에는 역시 이곳에서 만난 또다른 10대 여학생 2명이 SNS 생중

계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대방팸과 관련) 추가로 언론 등 제보 내용이 있어 관찰경찰서에 하달, 내용의 신빙성에 따라 적절하게 단계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최근 112신고를 통해 접수되는 극단선택 건수가 단기간 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A양 사건 발생 직후인 4월 17~24일 8일간 112에 접수된 서울 내 극단선택 관련 신고는 23건으로, 발생 직전에 비해 하루 평균 30.1%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미성년자 극단선택 건수도 단기간에 급증했다고 판단돼 현재 관련 신고 사항에 대해선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수색을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 중”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극단선택과 관련한 영상·게시글 총 54건에 대해 삭제·차단할 것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청했고, 현재 대부분 차단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